

서울숲컨서번시

# 월간서울숲

직원인터뷰

2구역

**녹지관리 담당자**

나무 스토리텔링

**산동처녀와 산수유**

서울숲, 어디까지 가봤니?

**바람의 언덕**

서울숲 다시보기

**인공동지 교체작업**

**〈식물의 소리〉전시**

**꽃사슴 이야기**



# 독수리 4남매



이우용 매니저



조유리 매니저

## Q. 나에게 서울숲이란?

보통 이런 질문은 마지막에 하지 않나요..TT  
나에게 서울숲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동산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숲이잖아요. 우리의 선대들이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셨듯이, 서울숲의 구성과 운영이 미래세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해져 IT(IT)템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식 되었으면 좋겠네요.ㅎㅎ

## Q. 이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 일을 시작하면 상상했던 멋진 일만 펼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나 날씨 같은 환경 조건에 따라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 낼 수 있는 자신만의 원동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관리된 식물의 모습, 또는 그걸 보고 좋아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 때 그런 피드백이 있으면 마음을 다잡고 룬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Q.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던 시기에 몇몇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멋지게 가꿔진 조경공간들을 보고 이런 곳을 내가 관리한다면 얼마나 멋있고 보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조경공간을 디자인하는 일 외에도 직접 손과 발로 화단을 만들고 식물을 가꾸는 일이 저에게 흥미를 주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이 고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 Q.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이 직업을 택하고 난 뒤, 감사하게도 한걸음씩 제가 꿈꿔왔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점차 성장하여 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된다면 10년 뒤에는 제가 세계여행을 하던 중 보았던 꿈꾸는 장소,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 Q. 서울숲에서 어떤 일을 하고있나요?

서울숲에서 녹지관리를 맡고 있는 이원영매니저라고 합니다. 서울숲에 있는 식물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단에 계절마다 빛을 내는 꽃을 심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나무에 죽은 가지가 있으면 자르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비료도 주고, 시민 분들의 보행로가 낙엽으로 덮히지 않도록 낙엽도 치우며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숲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Q.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나요?

이제 곧 다가올 봄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숲의 전 직원이 동원되어 튼튼구근을 심었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심겨져야 할 수만개의 튼튼 구근을 보았을 당시에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자원봉사자들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생각보다 빠르게 식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설레는 마음으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Q.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작년에 맡은 '퇴비장' 프로젝트. 기존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곳을 서울숲에서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했어요. 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물 부산물(낙엽, 나뭇가지)과 동물(꽃사슴, 토끼) 분변, 인근 카페에서 소비되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자루에 담겨진 퇴비가 재사용되어 공원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었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숲의 낙엽이 퇴비가 되는 과정'에 대한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환경교육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퇴비장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존재감 있는 공간은 아니었지만, 공원에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었어요. 이러한 퇴비장의 가치에 대해 프로그램 참가자 분들께서 깊게 공감해주시고 꼭 필요한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셨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 Q. 서울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바라는점

'자신들의 인생샷'을 건지겠다는 이유로 식물이 있는 곳으로 무작정 들어가는 분들 때문에 애써 가꾼 꽃과 나무들이 상할 때 너무 속상합니다. 나에겐 인생샷을 건지기 위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사진 유청오 작가

서울숲, 어디까지 가봤니?

## 바람의 언덕



함께 보면 좋은 공간



서울숲 조각정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숲의 향해>는 정원내에 조성된 느티나무 숲을 엄두에 두고 구상된 작품이다. 장방형의 긴 대리석 대좌에 짙은 청색(Yve Klein's Blue:YKB)으로 칠해진 초승달 모양의 단순한 형태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원인종 교수. 숲의 향해

바람의 언덕은 서울숲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강에서 항상 바람이 불어와 '바람의 언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바람의 언덕에는 대규모 억새밭을 조성하여 가을에는 바람에 너울거리는 억새물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생태숲을 공중으로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형태의 보행가교는 바람의 언덕을 지나 한강 수변공원으로 한 번에 이어집니다. 보행가교는 서울숲에 방사된 고라니, 꽃사슴 등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한강의 전망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산책로입니다. 또한 바람의 언덕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조형물 '먼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원인종 교수의 작품으로, 한강변에 인접한 바람의 언덕 위에 마치 깃발처럼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작품의 아래 부분은 배의 돛을 연상시키며, 서울숲과 한강을 잇는 생태적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나무 스토리텔링 산수유 처녀와 산수유 열매

서울숲에서 가장 먼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산수유가 만개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구례군 산동면에 위치한 ‘산수유 마을’을 아시나요? 약 1,000년전 중국 산동성에 사는 처녀가 이 마을로 시집을 올 때 처음으로 산수유를 가져다 심은 것이 현재까지 번식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산수유를 많이 재배하는 구례 산동지역에 살던 옛 처녀들은 입에 산수유 열매를 넣고 앞니로 씨와 과육을 분리하는 작업을 어릴 적부터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산동 지역의 여성들은 앞니가 많이 닳아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산동 처녀는 쉽게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몸에 좋은 산수유를 입으로 분리해 온 산동처녀와 입을 맞추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 보다 이롭다고 알려져 산동의 처녀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등 신붓감으로 꼽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은 번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기 위해

산수유 꽃을 연인에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 산수유를 찾아보아요 !



### 산수유 총총나무과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성상 낙엽활엽소교목

개화 3 ~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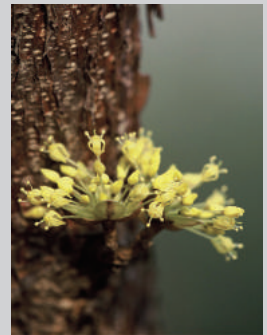
결실 8월

생육환경

대체로 비옥한 산간계곡, 산록부, 논둑, 밭둑의 공한지 등에서 생장이 양호

특징

산골짜기에 얼음이 풀리고  
아지랑이가 피는 3월 중순경이면  
화사한 황금색 꽃이 피어 약 보름 간  
계속되며 가을에 진주홍색으로 익는  
열매가 겨울 내내 붙어 있는  
아름다운 관상수이다.



▲ 산수유 열매

# 서울숲 다시보기

## 산림과학원과 함께하는 인공둥지 교체 및 보수작업

인공둥지는 새들 중 자신이 직접 나무에 구멍을 파지 못하고 딱다구리류가 파 놓은 구멍이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는 박새류(박새, 곤줄박이, 쇠박새, 진박새)에게 둥지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숲에는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가는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생태 및 서식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된 인공둥지가 있습니다. 지난 1월30일, 기존의 낡은 둥지를 산림과학원의 특허로 제작된 새 둥지로 교체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3월 중순 - 6월은 박새들의 번식기이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지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였답니다. 서울숲이 많은 생명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 DMZ 식물 DNA 사운드 스케이프 식물에도 소리가 있다?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3일간 DMZ를 대표하는 자생식물 20종의 DNA데이터를 사운드 아티스트들이 구조 음성화(sonification)한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DMZ는 지난 50여 년간 출입통제구역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연구의 학술적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식물의 소리> 전시는 DMZ의 식물정보를 예술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소니피케이션(Sonification) : 시각데이터를 음성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



### “ Mini interview

작업하는 동안 식물의 DNA 데이터를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모두 식물이기에 비슷한 듯 싶다가도 아주 조금씩 다른 유전배열이었는데,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가 되어 전혀 다른 모습의 식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이 공존한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전시장을 지키며 다양한 관점으로 전시를 바라봐주시는 관람객분들을 만나며, 사람 사는 세상과도 별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식물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어울리는 서울숲에서 전시할 수 있어 뜻깊었고, 다음에도 또 다른 전시로 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물의 소리>  
이다영 작가님

”



## 사육사가 들려주는 꽃사슴 이야기

지난 1월 17일, 꽃사슴에게 직접 사료를 먹여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기 힘든 동물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들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던지고 맨손으로 먹이를 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꽃사슴과 한층 더 가까워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에도 '사육사가 들려주는 꽃사슴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녹용**  
velvet antler 鹿茸 (6~7월)

새로운 뿔이 나와 뿔 속으로 혈액 순환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뿔의 상태



**녹각**  
hard antler 鹿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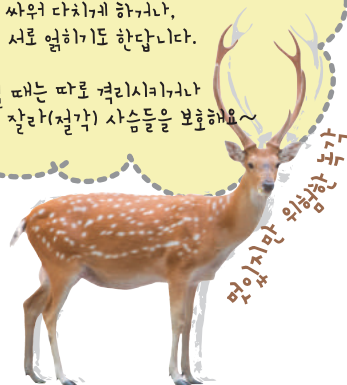
녹용이 자라서 그 속에 들어 있던 피의 양도 줄고 털도 뺏뺏하게 되어 굳어진 것

사슴 뿔이 녹각이 되면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우어서 위험해요!

서로 싸워 다치게 하거나, 뿔이 서로 얽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따로 격리시키거나 뿔을 잘라(절각) 사슴들을 보호해요~

뿔이 자라지만 위험한 녹각



**낙각**  
casting 落角

딱딱하게 뻐처럼 굳은 뿔이 다음해 봄이 되어 저절로 떨어진 것



### ※ 못생김 주의



다시 새로운 뿔이 자라는 사슴

### 사슴 뿔의 생장 과정

사슴의 뿔은 대개 해마다 1회 탈락하고, 약 4개월이면 다시 딱딱한 뿔을 완성한다. 자라고 있는 동안의 뿔이 녹용이며 외부는 가느다란 털이 난 피부로 덮여있다. 사슴의 뿔은 해마다 가지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3년째 돌아오는 뿔에서 사슴이 가지는 고유의 뿔형태를 갖추게 된다.

### 사슴 뿔의 기능

사슴 뿔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을철 발정기에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가장 큰 뿔을 가진 수사슴이 우세하지만 성숙한 수사슴은 어린 사슴에 비해 뿔이 빨리 떨어지므로 나이드는 대장 수컷은 뿔을 잃으면 지배력을 잃는다. 이 때, 젊은 수사슴은 일시적으로 지배력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도시공원 이야기**

**일시** 3월 20일 ~ 4월 10일  
매주 (수) 10:30 ~ 12:00  
90분 | 4회 연강

**대상** 성인 15명

**장소** 서울숲 방문자센터

**내용** 서울숲 등 공원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공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배우는 연속 강좌 프로그램

**참가비** 2만원 (4회)

**신청** 서울숲홈페이지,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



[프로그램]  
**홍성각 교수의 나무 이야기**

**일시** 3월~12월 2,4주차 (월) 10:00 ~ 12:00 (2시간)

**대상** 성인 20명

**장소** 서울숲 커뮤니티센터 집결

**내용** 서울숲에서 자라는 수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산림생태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해를 돕는 전문 강좌

**참가비** 무료 (선착순)

**신청**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 서울숲홈페이지



[공연]  
**서울숲 온스테이지**

**일시** 2월~5월 4째주 토요일 14:00 ~ 15:00 (60분)

**장소** 서울숲 곤충식물원 2층

**내용** 한국식 오카리나 앙상블 '라온제나' 팀의 식물원 속 힐링 연주회

**관람비** 무료



현재 구제역 **경계단계** 발령으로 인해 사슴우리 관람은 가능하나, '꽃사슴 체험 프로그램' 및 '먹이 자판기'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며 경계단계 해제시 판매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